

OS-X 버전 국내 공급 차질

애플코리아 서체공급사와 CID 폰트 계약 마찰

UNIX 기반의 안정성과 웹과의 호환성이 대폭 향상된 애플코리아의 OS X 버전이 서체공급사와의 원만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OS X 버전이 CID 폰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CTP 장비는 물론 국내 출력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어서 그 안타까움이 더 크다.

애플코리아가 OS X 판매를 시작한 것은 2001년 6월 25일. 그리고 지난 8월23일에는 성능이 더욱 향상된 10.2 버전이 발표됐으며, 8월말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면서 외관상으로 OS X의 국내 상륙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속내는 많이 다르다. 서체회사와의 계약이 계속 지지부진 하다면 OS X의 국내 상륙이 자칫 무산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애플코리아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애플코리아 한 관계자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담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보다 시장 잠식이 어려운 건 사실이며, 서체회사들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도 OS X가 국내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며 OS X 버전의 국내 판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프트매직 100% 사용가능 윤디자인 30여종만 계약

애플코리아 관계자의 표현처럼 문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른바 서체 문제이다.

8월말 현재 애플코리아와 폰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CID 폰트 개발을 실시하고 있거나 개발을 약속한 회사는 소프트매직과 윤디자인연구소, 아시아 폰트 등이다.

소프트매직과 아시아폰트는 회사에서 출시한 전 종의 서체에 대해 이미 CID 폰트를 출시한 상태이며, 윤디자인연구소는 30여종을 출시기로 계약한 상태로 어떤 종류의 서체가 출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자체 보호기능이 없는 트루타입 서체가 보급된 한양정보통신의 경우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트루타입 서체 전용이 OS X 버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같은 트루타입 서체이지만 자체 보호 기능이 있는 서울시스템과 산돌글자은행의 트루타입 서체는 OS X에서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국내 대표 서체회사 중 유일하게 CID 폰트 전 종을 출시한 소프트매직의 경우 자사의 Project-M 판매를 위해 이미 애플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서체회사들의 CID 폰트 출시는 확실히 더디기만 하다. 이처럼 CID 폰트 출시가 지부진한 이유는 CID 폰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이다.

우선 문제시되는 것은 CID 폰트의 비 보완성이다.

서체회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서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면용 트루타입 서체라 하더라도 출시회사에서 락을 설정해 둔다. 서체의 도용과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CID 폰트의 경우 락을 설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락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1폰트 1엔진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칫 번들용처럼 불법 복제까지 이어져 회사운영에 있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ID 폰트가 출시된다는 것은 또한 포스트스크립트용 서체가 필요 없는 서체가 출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서체들은 트루타입과 같은 화면용 서체와 이와 같은 형태를 글자꼴을 출력해 줄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용 서체가 필요한데 주지하다시피 포스트스크립트용 서체는 서체 회사의 효자종목이다.

아무런 대안이 없이 포스트스크립트용 서체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서체회사로서는 회사의 운명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서체회사로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애플코리아에 다소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애플코리아는 서체회사들의 과도한 요구를 선뜻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CID 폰트 출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태동의 기미를 보이

고 있는 PDF 변환서비스라는 단계를 건너 뛸 수 있다는 것이다.

CID 폰트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체회사들은 유니덱스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PDF로 변환 될 서체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때 출력회사를 상대로 한 영업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ID 폰트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이익이 보존되는 상황에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영업권을 포기한 채 새로운 시장으로 넘어갈 만한 이 유가 서체회사에는 없는 것이다.

UNIX 기반 시스템 안정성높아 능력 향상

OS X가 활성화 될 경우 프리프레스 업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서체에서 일어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OS X는 CID 폰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PDF 변환 툴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별도의 PDF 변환 서비스를 거치지 않더라도 컴퓨터 자체에서 PDF로의 문서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굳이 포스트스크립트용 폰트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최신의 Rip만 갖춘다면 최 상질의 인쇄가 가능하다. 아울러 매년 구입해야 하는 신 서체 가격 부담 또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 문제에 대해 한가지 가능성을 언급하자면 서체회사와 애플코리아와의 서체 공급계약으로 인해 애플 코리아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국내 보급되는 OS X버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년 지출하는 신 서체 비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폰트 이외에도 OS X 버전 채택의 매력은 OS X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의 안정성이다.

애플의 기존 OS 버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OS인 OS X는 몇 가지 첨단 신기술과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맥 OS 보다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자동 네트워킹 및 휴대용 컴퓨터 절전모드에서 동작모드로의 즉시 변환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OS X는 또 폭 넓은 '반투명성(translucency)'을 활용,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화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킥타임 무비를 아이콘화 시켜도 동영상은 계속 플





레이되는 혁신적인 기능도 추가됐다.

애플은 또 OS X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고도로 모듈화 돼 있어 프로그램의 향상이나 수정이 보다 용이하게 됐다.

애플은 이러한 전혀 다른 버전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OS의 경우 클래식 모드를 통해 OS X에서 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S 9에서 OS X로의 이전을 완만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전략을 채택했다. 사용자들은 컴퓨터 재부팅만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OS를 선택할 수 있다.

올 8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OS X 10.2버전을 통해 OS X는 10.1에서 문제시 됐던 실행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코드명 재규어로 불리는 맥OS X 10.2는 시스템 안정화와 함께 검색, 웹 관련 서비스가 운영체제 안에 통합된 것이 특징이다. 주소록, e메일, 네트워크 연결 등 150가지 기능이 더해졌으며, 특히 한국통신 ADSL을 사용할 경우 IBM PC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양자간 원만한 타결로 무리없이 도입돼야

OS X버전의 적극적인 활용은 인쇄업체 내부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온 서체 공급문제와 PDF활용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서체 공급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PDF 변환 서비스 시장을 뛰어 넘어 CID 폰트로 직행한다는 것은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애플코리아 역시 이런 부담을 안고 요구하는 서체회사와의 타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둘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서체문제로 야기된 프리프레스 시장의 아날로그적 행보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아날로그적 행보의 부담은 고

스란히 출력업체를 비롯한 인쇄업계 전반은 물론 인쇄업계의 소비자도 자리 매김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부담이 된다.

실사 서체회사와 애플코리아의 타협으로 인해 OS X 사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프리프레스 시장의 아날로그적 행보를 해결 할 수 있다면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가격인상을 이해해 주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홍우 기자 <photoyw@print.or.kr>